-1 -

장기간 체류한 기관지 및 식도이물

경 북의 대

성창섭・조태환・최상규・탁기식・이웅렬・배홍갑

서 론

식도 및 기도이물은 순간적인 부주의로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불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곧 제거하게 된다. 그러나 보호자의 무지, 환자가 연소자인 경우, 그리고 치료자의 적극적인 진단이 결여된 경우에 이물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채 장기간 채내에 체류하게 되며 그 결과로생긴 합병증을 주소로 타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뒤늦게 이물을 발견하고 이비인후과로 전원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저자들은 체내에 장기간 체류한 식도이물 1 혜와 기관 지어물 1 레를 각각 경험하였기에 그 문헌적 고찰과 함 께 보고하는 바이다.

-2 -

고도의 식도 협착증 7예

부산메리놀병원

김기주・김호성・조중화

생활수준 및 사회환경의 개선에 힘입어 부식성 약물인 식초, 염산, 쥐약및 농약으로 인한 식도 부식증은 현저히 감소되었다. 식도부식증으로 초래된 합병증인 식도 협착 은 즉각적인 응급처치 및입원치료로 그 발생빈도가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및 부주의, 환 자 및 보호자의 비협조로 가끔 식도 협착을 만나게 된다.

고도의 식도 협착증 환자 7 례중 18~51 French Sippy esophaglal dilating boughe 로 식도확장이 가능했던 6 레와 전식도부 협착으로 흉부외과로 전과된 1 례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 : 23 세된 가정주부로 자살목적으로 염산을섭 취후 2 개월후, 연하곤란으로 위루술시행후 즉시 내원하 여 제 1 생리적 협착부 확장이 가능했던 예.

증례 2 : 51 세 남자로 가성소다를 오연하여, 2개월후 제 2 및 제 3 생리적 협착부 협착증을 일으켰는데, 성공적으로 확장이 가능했던 예.

증례 3: 43세 남자로 빙초산을 술로 오연하여부적절한 치료로 제 3 생리적 협착부에 협착을 일으켜 내원하여, 부지술로 식도 확장을 시도 하고 있는 1예.

증례 4: 58 세된 여자로 염산쥐약을 섭취후 제1생리 적 협차부 및 유문부 협차으로 위십이지장 문합술을 시 행하여 2개월후 내원하여 식도,확장이 성공하예

증례 5 : 47 세 여자로 내원 4 개월전 자살목적으로 염산을 섭취후 Tube 삽관을 1 달 가량 하였으나, 제 1 및 3 생리적 협착부에 식도 협착이 와서 치료중인 예.

중례 6 : 21 세 남자 운동선수로 14 개월간 3 일에 2 숟갈씩 뼈를 부드럽게 하기위해 빙초산을 섭취하여 연하 곤란으로 일반 외과적 수술을 시행후 내원하여, 식도 엑스선촬영상 전식도부 폐색을 보여 흉부외과로 전과 시킨 예

증례 7: 3살된 여하로 가성소다를 오연해 전식도부 협착으로 전신마취하에 16개월간식도 부지법으로 확 장중 식도 하부 천공이 생겨 치유시킨예.

-3-

氣胸을 동반한 氣道異物 1例

忠南醫大

羅基庠・金無名・金光顯・朴賛日

氣度異物은 耳鼻喉科領域에서 드물지 않은 疾患으로 異物의 種類도 다양하지만 그 介在部位도 다양하여 때로 異物除去에 手術的 方法을 요할 때도 있다. 著者들은 최 근 볼펜투정을 吸引한 15 세의 여자환자에서 胸部 X -線上 左側 肺下葉의 無氣肺가 나타나고 右側에 氣胸을 동 반하고 있으며 氣管支造影圖上 左側 下葉氣管支의 完全 閉塞을 관찰하였다. 全身麻醉下에서 氣管支鏡術에 의한 -1-

Foreign Bodies Lodged in Bronchus and Esophagus for a Long Period

Chang Sup Sung, M.D., Tae Hwan Cho, M.D., Sang Gyu Choi, M.D., Gi Sick Tark, M.D., Lee Ung Youl, M.D., and Hong Gab Bae,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aegu, Korea

Foreign bodies in airway and food passage commonly occur by accident, and in most cases they get removed without delay.

But sometimes, because of patron's ignorance and lack of physician's eagerness in examination, the possible presence of foreign body is overlooked.

And patient with subsequent symptoms is transferred to ENT department after managed by non-otolaryngologist for a long time.

We had experienced and studied two cases of foreign bodies which had been lodged for a long period.

-2-

Seven Cases of Severe Esophageal Stricture

Gi Joo Kim, M.D., Ho Sung Kim, M.D., Joong Hwan Cho, M.D.

>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Maryknoll General Hospital, Busan, Korea

With the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and

socioenvironmental change, esophageal stricture due to acetic acid, Hcl, insecticides and lye has led to decrease remarkably.

Esophageal stricture has decreased because of immediate treatment and adequate management. However there are still sporadic incidents of esophageal stricture due to inadequate treatment and uncooperation of patients. The authors recently have experienced seven severe cases of esophageal stricture. All six patients were treated with 18-51 French Sippy esophageal dilating bougie. One patient was transfered to thoracic surgery department due to complete esophageal obstruction.

Case 1. A 23 year old housewife who ingested Hcl for suicide. After Witzel's operation, she visited to dilate esophageal first constriction stircture due to swallowing difficulty postoperation 2 months later. We were treated successfully.

Case 2. A case of esophageal stricuture in the second and third physiologic constriction part. The patient was 51 years old man who ingested lye accidently, and was dilated by bougination.

Case 3. The patient was 43 year-old man who ingested acetic acid as a mistake and was treated inadequately at hopsital. Inspite of treatment, esophageal stricture developed at the third physiologic part. We are trying to dilate the esophagues now.

Case 4. The patient was 55 year-old woman who had ingested Hcl for the purpose of suicidal attempt. 2 months later gastroduodenal anastomoisis due to pyloric region stenosis, the first physiologic constriction stricture was dilated successfully.